

統一新羅期 陵墓石像에 나타난 복식연구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의류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권준희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의류학과
교수 이순원

目 次

I. 서론	1. 十二支像에 표현된 복식의 형태
II. 陵墓石像의 기원 및 변천	2. 石人像에 표현된 복식의 형태
1. 十二支像	IV. 결론
2. 石人像	참고문헌
III. 陵墓石像에 나타난 복식	ABSTRACT

I. 서론

統一新羅는 698년 渤海 건국과 더불어 '南北朝時代'를 형성하였으나 百濟와는 사실상의 통일을 이루었고 일부 高句麗 유민들을 신라로 유입, 三國이 갖고 있던 문화적 다양성들을 하나로 통일하였다는 점에서 문화사적 의의가 크다. 또한 삼국 문화의 통합을 기반으로 당시 국제문화라 할 수 있는 盛唐문화를 계속적으로 소화해냄으로써 古代문화의 확립을 이루었고 高麗문화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에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統一新羅 복식에 관

한 연구를 살펴보면 金東旭¹⁾의 『三國史記』에 나타난 興德王 服飾禁制를 중심으로 中國服飾, 日本服飾과의 비교를 통한 연구가 시작된 이후 1986년과 1987년, 慶州 龍江洞과 陰城洞 고분에서 다수의 土俑이 출토됨으로써 『三國史記』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실증적인 자료로서 土俑에 나타난 복식에 관한 연구²⁾로 이어졌고, 그의 주변나라 즉 日本 正倉院의 유물과 唐代 복식자료와의 비교,³⁾ 서역과 新羅 복식과의 관계를 밝혀려는 노력⁴⁾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진행과정에서도 여전히 興德王 服飾禁制에서 보이는 복식 명칭에 대한 異

- 1) 金東旭, "신라의 복식" 『增補韓國服飾史研究』, 아세아 문화사, 1979.
- 2) 金仁淑, "龍江洞土俑에 나타난 服飾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具仁淑, "陰城洞古墳出土 土俑의 服飾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崔燕京, "新羅土偶에 나타난 服飾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3) 朱星姬, "日本 正倉院의 「吳女背子」에 對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朴春玉, "袂에 관한 연구(唐 新羅 古代日本을 中心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李玉曼, "唐代 男子服飾에 關한 研究-統一新羅時代 服飾과의 比較面에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4) 한용숙, "新羅服飾과 위구르服飾의 관계 연구", 服飾 제24호, 1995.

說들이 존재하고, 신라 陵墓의 十二支像과 각종 石人像 등 陵墓石像에서 보이는 복식 또한 통일신라 복식연구의 핵심에서 등한시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統一新羅期(669~936년) 陵墓石像 중 石人像(聖德王陵 1쌍, 元聖王陵과 興德王陵 각 2쌍)과 十二支像(11개 陵의 十二支像 중에서 구체적인 복식형태를 보이는 推定神文王陵, 金庾信墓, 憲德王陵 十二支像을 중심)의 복식을 살펴봄으로써 統一新羅期の 복식을 이해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

II. 陵墓石像의 기원 및 변천

1. 十二支像

十干十二支의 十二支 즉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가 각각 鼠, 牛, 虎, 兔, 龍, 蛇, 馬, 羊, 猴, 鷄, 犬, 猪의 동물로 형상화되어 나타난 것은 漢代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해지고 十二支의 동물을 시간과 방향에 해당시켜, 가령 墳墓에 배치하였을 경우 이는 死者의 靈魂을 時時로 평안케 하며 또 각 방향을 分擔守護함으로써 모든 惡鬼를 물리친다는 주술적인 의미에서 사용되어졌으리라고 보여진다.⁵⁾

이러한 動物生肖가 獸首人身으로 인격화되어 확립된 것은 중국 唐代부터인데 墓誌나 明器에 표현되어 오던 十二支生肖는 唐中期로부터 後期까지 성행하였을 뿐 火葬이 보급됨에 따라 墳墓나 副葬品도 자연 간소화하게 되어 그 예를 찾을 수 없게 되며, 그 맥락이 장기간 끊기다가 清末에 圖畫屏風으로 만들어진 예가 있다고 한다.⁶⁾ 그런데

唐代의 경우는 十二支俑이 <그림1>의 형태로 양식적 변천이 거의 없이 다른 文武官, 神將, 天人, 武人, 奏樂歌舞하는 여인, 胡人 俑등과 함께 殉葬品으로서 明器중의 하나로 사용됨으로써, 다만 時間神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⁷⁾ 또 복식을 살펴보아도 모두 廣袖袍를 착용하고 두 손을 廣袖안에 넣어 拱手의 자세를 보이고 있어 死者를 보호하는 수호신의 성격보다는 時間神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하여 統一新羅는 唐代의 副葬明器인 十二時의 유입과 함께 十二支俑이 매우 짧은 기간 채용되다가 곧 神將像의 성격을 획득하여 墓 안에서 墓 밖으로, 明器에서 彫刻品으로 이행하여 統一新羅 나름의 十二支彫刻이 성립되고 발전되어 가게 된다.⁸⁾ 즉 초기 俑의 형태로 제작된 것들⁹⁾은 대부분 30cm이내로 소공예품적 성격을 띠고 있고 唐代의 十二支俑과 같은 廣袖袍를 착용하고 있으나 陵墓 護石의 浮彫像의 형태로 발전함에 따라 전성기에는 1m정도로 커지며 복식에 있어서도 廣袖袍로만 표현되었던 것이 하나는 武服차림, 다른 하나는 襦·袴 혹은 袍·裙·袴 등의 두가지 형식이 존재하게 되고, 또 두가지 형식 모두 무기를 들고 있어 守護神의 성격을 더욱 강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統一新羅期 陵墓 護石에 十二支像이 조각된 예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陵墓 이외에 佛教建造物의 石塔, 浮屠, 石燈, 龜趺 등에도 광범위하게 응용되었는데 塔龕의 경우는 陵墓 護石에 사용된 경우와 달리 좁은 공간에 표현되어 복식의 형태를 거의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¹⁰⁾

5) 孫景穗, "韓國十二支生肖의 研究" 『梨大史苑』 제4집, 1962. pp.2~3

6) 姜友邦, "統一新羅 十二支神像의 樣式的 考察" 『考古美術』 154·155 合號. 1982. p.118.

7) 姜友邦, 앞논문, p.119.

8) 姜友邦, 앞논문, p.120.

9)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國立中央博物館所藏의 巳(蛇)像 및 午(馬)像, 國立慶州博物館所藏의 未(羊)像과 더불어 傳聞哀王陵出土, 慶北 慶州郡 內南面 出土의 十二支俑이 전하고 있다.

10) 다만 遠顛寺址 東西兩塔과 月城郡 見谷面 下丘里의 廢寺址에서 발견된 石塔面石의 十二支像에서는 뚜렷한 복식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데 전자는 廣袖袍만으로 표현되어 있고 후자는 袍·裙·袴의 차림으로 武服이 아

2. 石人像

中國의 경우 陵墓 前面에 石人像 등을 배열하는 것은 前漢시대부터 시작되어 後漢시대에 일반화되었고 唐代이래 盛行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가장 오래된 石人은 後漢시대인 기원후 118년 中國 河南省 嵩山 中岳墓의 것과 역시 後漢시대인 146~156년으로 알려진 山東省 曲阜縣에서 출토된 樂安太守墓의 것이 있다. 그런데 樂安太守墓에 있는 石人 二軀의 가슴에는 「漢故樂安太守慶君亭長」과 「府門之卒」이라는 글씨가 각각 새겨져 있어 이 石人 1쌍은 「府門의 長」과 「卒」로서 太守 墓前의 警護로 배열한 石像임이 분명하고¹¹⁾ 따라서 石人像에 표현된 복식도 당시 그 신분의 복식 착용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후 이러한 石人像의 형식은 唐代까지 지속되었는데 泰陵(763년) 이후부터는 文人像과 武人像이 구별되어 모두 冠을 쓰고 長袍를 입은 것은 동일하지만 文人像은 笏을 들고 있으며 武人像은 長袍위에 다시 褙褶을 입고 長劍을 두 손으로 잡고 있는데 이는 儀仗일 뿐만 아니라 文武百官을 대표하거나 혹은 百官衙署의 상징으로도 보인다.¹²⁾〈그림 2〉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陵墓 石人像이 統一新羅期에 처음 도입되었고 현존하는 石人像의 예는 〈표 2〉와 같은데, 衛門의 衛士나 陵墓의 守護라는 石人의 本義를 구상하여 長袍 위에 唐代 武人像에서 보이는 褙褶鎧를 입고 長劍을 양손으로 잡은 형상을 하고 있고 이외에 窄袖의 圓領袍 차림인 胡人石像도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배치도는 〈그림 3〉과 같다.

Ⅲ. 陵墓石像에 나타난 복식

1. 十二支像에 표현된 복식의 형태

陵墓에 武服차림이 아닌 十二支像이 조각된 예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가지 뿐이나 造成年代가 확실한 것은 9세기 前半期의 憲德王陵 하나 뿐이다. 다만 推定 神文王陵¹³⁾의 十二支像이 8세기 中葉에 조성되었다고 한다면 8세기末 憲恭王 때 만들어졌으리라 추정¹⁴⁾되는 金庾信墓 十二支像을 兩者 사이에 넣어 고찰할 수 있다고 보고 推定 神文王陵, 金庾信墓, 憲德王陵의 순으로 護石에 나타난 복식을 살펴본 후 나머지 8개 陵墓의 十二支像에 나타난 武服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推定 神文王陵 十二支像

推定 神文王陵 十二支像(그림 4)은 唐代 十二支像과 같은 廣袖袍를 착용하고 있는데 直領右衽이고 袍의 전체 길이는 무릎아래에 이르며 허리부위에 帶를 매고 있는데 帶의 매듭부분이 前面에 표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後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二重의 밑단이 무릎이하 부분에 묘사되어 있어 裙을 착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袴를 착용한 후 그 위에 裙을 착용한 것으로 보이고 靴를 신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着服形式을 唐代 十二支像과 비교해 보면 唐俑은 다만 廣袖袍로 허리에 帶의 여밈도 보이지 않고 動的의 경향이 전혀 없는 拱禮像인 것에 반해 推定 神文王陵의 것은 神將像의 성격을 띤 까닭에 어느 정도

넘을 알 수 있다. 이외에 佛教建造物에 十二支像이 사용된 예에서는 모두 武服이 아닌 차림을 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仁王像, 四天王像, 八部衆 같은 佛法守護神이 이미 石塔에 조각되어 있으므로 十二支像은 다만 十二方位神 혹은 時間神의 성격을 가볍게 상징하는 의미로 十二支像이 이용되었으리라 본다. (姜又邦, 앞논문, p.132)

11) 朴敬源, 「統一新羅時代의 墓儀石物 石人 石獸 研究」 『考古美術』 154·155 合號, p.175.

12) 蔡浩, 「隋唐考古」, 南京大學出版社, 1992, p.98. 현재 唐代 18陵에 남아 있는 石人像의 내용은 위 책 pp.92~93의 唐陵 石刻一覽表에서 자세히 실고 있다.

13) 姜又邦, 「新羅十二支像의 分析과 解釋—新羅十二支像의 metamorphose—」, 『佛教美術』 1, 1973. pp.28~31.

14) 姜又邦, 「統一新羅 十二支神像의 樣式的 考察」 『考古美術』 154·155 合號, 1982, p.131.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着服形式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며 또한 대부분 三枝槍이라든가 도끼 등을 執武器한 점으로 보아 拱禮的 性格을 지닌 唐俑에서 統一新羅期の 十二支像은 神將像으로 확립되어 가는 과도기적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¹⁵⁾

그런데 袴를 착용한 후 그 위에 다시 裙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은 당시 中國에서 禮服의 개념을 도입한 데에서 연유한 것이기는 하나 騎馬民族복식의 특징인 袴를 함께 착용함으로써 中國的인 요소와 新羅의인 요소가 결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袍와 裙의 밑단이 모두 앞 여밈에서 등골게 굴러진 모습은 유사한 형태의 벽화나 유물이 전혀 없어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려운데 다만 未(羊)像의 경우 허리의 帶 위로 다시 불룩하게 솟은 듯한 선이 묘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袍와 裙의 자락을 앞부분에서 帶위로 끌어올려 삼입함으로써 형성되었다고 추측된다.

(2) 金庚信墓 十二支像

金庚信墓 十二支像(그림 5)은 앞서 제시하였듯이 8세기말 惹恭王 때 조성되었으리라 추측되는데 推定 神文王陵 十二支像에서와 같은 廣袖의 長袍와 裙의 착용과는 달리 모두 直領右衽이며 臂部에서 무릎 위에 이르는 길이의 褙와 袴를 착용하고 허리에 帶를 매고 있어, 拱禮的 性格을 지닌 唐俑에서 완전히 벗어나 統一新羅期の 神將像으로 확립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褙의 경우 12개 像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어서 褙의 直領깃 표현도 8개 像 [寅(虎), 卯(兔), 巳(蛇), 午(馬), 未(羊), 申(猴), 酉(鷄), 戌(犬)]에서는 이중선으

로 표현되어 있고 나머지 4개 像에서는 단일선으로 표현되어 있어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된 문헌기록을 살펴보면 『三國史記』 武官條의 「衿이란 대개 書傳에서 이른 徽章인데 詩傳에서는 「織文鳥章」이라 하였고 注에 이르기를 「織은 徽章이요 鳥章은 鳥竿의 文章이다」라고 하였다. 장수이하의 옷에 모두 달았던 것이다……신라사람의 徽章은 青, 赤 등의 색으로 구별하였는데 그 형상은 半月이다. 巋역시 옷 위에 달았으나 그 길고 짧은 제도는 자세히 알 수 없다」¹⁶⁾는 기록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朴恩用은 오늘날 옷깃의 깃은 新羅時代쯤 [kisi]>[kici]>[kic]>[kis]에서 온 것이며 그 발생은 幢(新羅의 軍單位隊)의 標識에서 유래한다¹⁷⁾는 언어학적 접근을 시도한 바 있다. 즉 新羅音韻체계에서 衿의 [kic]과 幢의 [kisi] 사이의 상호관련은 군대조직의 한 단위였던 幢이 그 부대의 표식으로 옷깃(衿)을 착색하여 부원의 소속을 표시하였음을 나타낸 것이고 그 표식의 색에 따라 綠衿幢, 紫衿幢, 白衿幢, 緋衿幢, 黃衿幢, 黑衿幢, 碧衿幢, 赤衿幢, 靑衿幢이라 일컬어졌다고 하였다.¹⁸⁾

그리고 金東旭¹⁹⁾은 淸州 蔡氏家墓에서 출토된 이중깃의 옷과 蔚山에서 출토된 壬亂당시 이중깃의 女服을 예로 들며 이는 半月形 新羅特色의 잔영이라 하였다. 또한 1973년 文殊寺 金銅如來座像에서 발굴, 高麗末葉의 것으로 추정되는 短袖衣의 깃 형태를 살펴보면 안깃은 한 판으로 되어 있으나 걸깃은 안에서 가운데를 접어 반박음질로 하여 線만을 남기고 있는데 이에 대해 劉頌玉²⁰⁾은 이것도 이중깃으로 보고 新羅時代의 九誓幢에 衿色을 두가지 색으로 나누어 표시하던 遺習이 高麗時代

15) 安又邦, 앞논문, pp.122~123, p.131.

16) 『三國史記』 卷第四十 雜志第九 職官下 武官條

「衿蓋書傳所謂徽織詩云織文鳥章箋云織徽織也鳥章鳥竿之文章將帥以下衣皆著焉……羅人徽織以青赤等色爲別者其形象半月則亦著於衣上其長短之制未詳」

17) 朴恩用, 「新羅軍制가 現代服飾에 미친 影響」, 『國文學研究』 제2집, 1969, p.37.

18) 朴恩用, 앞논문, p.18.

19) 金東旭, 앞책, pp.31~32.

20) 劉頌玉, 「朝鮮時代 出土服飾을 통해 본 男子袍研究」, 『大東文化研究』 제18집, 1984, p.159

天王像의 武服에서 차용한 팔찌등으로 미루어 統一新羅時代의 武官服飾의 일종임을 알 수 있다.

(3) 憲德王陵 十二支像

憲德王陵 十二支像<그림·8>은 현재 寅(虎), 卯(兔), 辰(龍), 戌(犬), 亥(猪) 5개 像만 남아 있다. 복식은 모두 直領右襟의 袍와 袴를 착용하고 있으며 허리부위에 帶를 前結하고 靴를 신고 있는 모습인데 袍의 길이는 무릎에서 무릎아래에 이르는 길이이다. 다만 寅(虎)像은 밑단에 좁은 폭의 또 다른 횡선이 묘사되어 있어 이는 三國時代 襦나 袍의 밑단에 가해진 襪의 遺象으로 보이며 加襪의 制는 統一新羅期에도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袍의 소매 표현은 寅(虎), 卯(兔), 亥(猪) 3개 像의 경우는 마치 소매가 바람에 날리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으나 金庾信墓 十二支像과 달리 上腕부분에 가는 帶狀의 표현과 함께 주름이 보이지 않고, 戌(犬)像은 왼쪽 소매는 寅(虎), 卯(兔), 亥(猪) 3개 像과 같이 소매가 바람에 날리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오른쪽 소매는 손을 감출만큼 매우 긴 소매로 묘사되어 있으며, 辰(龍)像의 경우는 양쪽 소매 모두 긴 소매의 廣袖이다. 따라서 戌(犬)像을 고려해 보면 이들 像에서 보이는 소매는 긴 소매인데 다만 손의 움직임에 의해 형성된 모양으로 보인다.

그런데 廣袖의 긴소매 袍를 착용한 辰(龍)像을 제외한 나머지 4개 像은 손목둘레에 가는 두줄의 선이 표현되어 있어 金庾信墓 十二支像과 마찬가지로 四天王像의 武服에서 차용한 팔찌인 것으로 보이고 寅(虎), 戌(犬), 亥(猪) 3개 像은 목둘레에도 가는 두줄의 선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 또한 四天王像의 頸當과 같은 목걸이로 파악된다.

한편 辰(龍)像은 直領깃의 표현에 있어서 4개 像이 단일선으로 표현된 것과 달리 金庾信墓 十二支像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直領의 깃이 이중선으로 표현되어 있다. 또한 발목부위에 세 개의 횡선을 표현함과 더불어 종아리부위에는 일종의 문양이 묘사되어 다른 像들과는 다른 복식을 착용했음

을 알 수 있는데 이는 行膝(脚絆)류로 해석된다. 따라서 辰(龍)像 복식의 이중선으로 표현된 깃과 寬袴가 아닌 行膝을 착용한 점은 金庾信墓 十二支像과 같은 武官복식의 요소로 해석될 수 있으나 소매통이 매우 넓은 廣袖의 袍라는 점 그리고 辰(龍)像에서 만이 四天王像의 武服에서 차용한 팔찌와 頸當과 같은 목걸이가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이의 복식을 한마디로 단언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憲德王陵 十二支像이 武服차림이 아닌 十二支像 중에서는 가장 시대적으로 늦은 9세기 전반기의 것이고 이후에는 陵墓 十二支像에서 武服차림만이 보이는 점을 고려해 보면, 襦·袴 혹은 袍·裙·袴등 武服차림이 아닌 十二支像의 消滅의 한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憲德王陵 十二支像에서는 推定 神文王陵에서 보이는 長袍의 의례적 차림, 金庾信墓의 武官복식에서 나타나는 이중선으로 표현된 깃, 그리고 四天王像의 武服에서 차용한 팔찌와 頸當과 같은 목걸이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武服 十二支像

十二支像이 초기 俑의 형태로 제작되다가 陵墓 護石으로 사용된 이후 十二支像에 나타난 복식은 하나는 武服차림, 다른 하나는 襦·袴 혹은 袍·裙·袴등의 두가지 형식이 존재하게 된다. 더욱이 武服차림<그림 9>은 十二支像이 조각된 11개 陵墓 중 8개 陵墓에서 보이는 것으로 十二支像이 陵墓 수호라는 神將像의 성격을 더욱 강하게 띠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武服 十二支像에서 보이는 복식은 佛法守護神인 四天王像의 복식을 그대로 착용함으로써 統一新羅時代 護國佛教의 성격과 契合하였음을 알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 四天王寺址 出土 彩釉四天王像의 武服<그림 7>은 上衣부터 살펴보면 頸當, 肩喉, 半袖, 胴着, 腹甲, 帶, 腰甲, 前當 등으로 이루어지고 下衣는 上着과 表袴, 脛當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四天王像의 武

服을 가장 충실히 따른 것은 金庑信墓 주위에 매장되어 있던 臘石製 十二支像이며 陵墓의 護石으로 사용된 十二支像으로는 聖德王陵에서 統一新羅 十二支神將像의 확립을 보게 된다. 그리고 이후 元聖王陵, 興德王陵, 景德王陵 및 陵只塔, 方形墳, 五柳里陵 의 十二支像에서 그 맥을 잇게 되는데 9세기 이후에는 복식의 세부가 사실적이라기 보다는 장식화의 경향이 일어나고 허리따라든가 天衣자락으로 護石面의 공간을 가득 채워 더욱 형식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²²⁾

일반적으로 갑옷은 여러모양의 鐵板을 連接하여 만든 板甲과 小札을 가죽끈으로 연결한 札甲으로 나눌 수 있는데²³⁾ 이들 武服 十二支像에 나타난 갑옷은 上衣는 장식성이 크게 가미된 板甲으로 보이며 下衣는 札甲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가야시대의 傳 金海退來里 출토 板甲<그림 10>은 胸部的 원형장식, 그리고 목주위의 반월형 장식 등에서 武服 十二支像과 매우 유사한 형식을 보이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즉 비록 傳 金海退來里 출토 板甲의 경우 武服 十二支像보다는 약화된 모습이고 또 肩甲이나 裳甲과 연결된 모습이 아니므로 그의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지니나 武服 十二支像에서의 武服은 佛法守護神인 四天王像의 복식을 차용하여 神將像의 성격을 크게 하기 위해 장식적인 면을 강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통일신라시대에 실제 착용된 갑옷은 傳 金海退來里 출토 板甲과 유사한 형태로 제작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武服 十二支像의 장식성은 갑옷이외에 廣袖의 주름처리에서도 알 수 있는 것으로 실제 四天王像에서는 짧은 半袖를 착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武服 十二支像에서는 廣袖의 매우 긴 소매로 처리하고 있으며 聖德王陵 十二支像에서는 소매

끝이 사실적으로 길게 늘어져 있으나 時代가 내려오면서 소매끝이 말려 天衣자락과 함께 형식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2. 石人像에 표현된 복식의 형태

<표 2>에서 제시하였듯이 石人像은 8세기 중엽부터 9세기 중엽에 이르는 聖德王陵, 元聖王陵(掛陵), 興德王陵의 세 陵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그 배치상태 및 복식형태의 유사성을 근거로 石人像1과 石人像2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石人像1<그림 11>은 長袍 위에 裲褠鎧를 입고 廣袖에 가려 劍의 머리부분은 보이지 않으나 廣袖아래 명확히 劍의 끝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 長劍을 양손으로 잡은 형상임을 알 수 있고, 石人像2<그림 12>는 胡人形으로 窄袖의 團領袍 차림을 하고 있다. 그런데 石人像1의 모습은 唐代 諸王陵에서의 石人像과는 다만 裲褠에 甲片 彫刻의 有無와 冠 형태의 相異함만을 제외한다면 동일한 모습이며, 泰陵(763년) 이후 文人像과 武人像이 구별된 이래에도 笏을 잡고 있는 文人像과 달리 長袍와 裲褠를 입고 長劍을 두 손으로 잡고 있는 武人像과 그 형태를 같이 하고 있다.

(1) 石人像1의 복식

머리에는 冠을 쓰고 長袍는 直領인데 위에 다시 裲褠를 입고 있어 裲의 방향은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목주위에는 또 다른 둥근 선이 묘사되어 있어 直領袍 속에 둥근 목둘레의 內衣²⁴⁾를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둥근 목둘레의 內衣는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古代 北方 騎馬民族사이에서 원래 걸옷으로 입혀지던 둥근 목둘레의 복식이 몸판 중앙에 절개선을 넣어 여밈을

22) 委友邦, 앞논문, pp.127~129.

23) 宋桂鉉, “三國時代 鐵製甲冑의 연구—嶺南地域 出土品을 中心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pp. 16~17.

24) 이후 石人像의 복식 표현 중 ‘內衣’라는 용어는 『三國史記』色服條 服飾禁制에 보이는 ‘內衣’와는 다른, 다만 걸옷 속에 받쳐입은 옷이라는 의미임을 밝혀둔다.

만들면서 점점 목둘레의 형태가 직선화되었고, 직선형의 목둘레선을 나타내는 복식이 더 많이 입혀지게 되자 등근 목둘레의 의복은 格式低下되어 內衣로서 그 맥을 잇게 된 것으로 보이며²⁵⁾ 이러한 등근 목둘레의 內衣가 三國時代 이후 統一新羅期에도 계속 착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袍의 소매는 袖口가 매우 넓고 長劍을 잡고 있어 소매의 길이를 단언하기 어려우나 매우 많은 수직적인 주름이 형성된 것으로 보아 손을 덮는 길이의 것으로 판단된다. 袍의 전체 길이는 발등을 덮어 매우 길게 표현되어 있고 元聖王陵 石人像은 다른 두개 陵의 石人像과 달리 가슴에 모은 袖口부분에 長袍 속에 입은 內衣의 소매 끝단을 표현한 선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長袍 위에는 裋褕의 兩片을 앞뒤로 가슴에서 무릎선까지 두르고 있는데 앞뒤는 어깨에서 끈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다시 허리에 帶를 매어 뒤에 길게 늘어뜨리고 裋褕의 표면에는 甲片이 조각되어 있다.

中國의 경우 裋褕은 武官의 복식으로 隋代에 이르러 武官이 常服으로 착용하였는데 이는 隋 大業(605~617) 中 平巾幘제도²⁶⁾의 기록으로 알 수 있고, 또한 『新唐書』 車服志 平巾幘²⁷⁾의 기록으로부터도 唐代 역시 裋褕을 武官의 官服에 가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唐代 諸陵에서 보이는 武人像이 착용하고 있는 복식은 武官의 官服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唐代 諸陵에서 보이는 武人像과 동일한 복식을 착용하고 있는 統一新羅期 武人像의 복식도 당시 武官의 官服으로 추정 가능성이 가능하다. 즉 統一新羅期 武官의 官服이 존

재하였음은 『三國史記』의 文聖王 元年 淸海鎮大使 弓福을 鎮海將軍으로 삼고 章服을 내렸다는 기록²⁸⁾으로부터도 알 수 있는 사실인데, 文聖王 元年(839)은 聖德王陵이 축성되었으리라 추정되는 8세기 중엽보다 1세기 가량의 기간이 흐른 뒤이나 이후 9세기 중엽의 興德王陵 石人像의 복식도 聖德王陵 石人像의 복식과 동일한 형태이므로 文聖王 元年(839) 淸海鎮大使 弓福을 鎮海將軍으로 삼고 내린 章服은 당시 武官의 官服으로 諸陵의 石人像에서 보이는 복식과 동일한 복식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또한 당시 日本은 禮服, 朝服, 制服의 제도가 있어 官位, 位階의 구별 외에 조정 公事의 輕重에 따라 복식을 달리 하고 있었는데 禮服은 公服 중 最上의 것으로 武官의 禮服을 보면 皂羅冠, 位襖, 皂綾, 牙笏, 繡裋褕, 金銀裝腰帶, 金銀裝橫刀, 白袴, 烏皮靴, 錦幸勝으로 구성되어 있어 繡裋褕을 가했음을 알 수 있는데 平常 公務時에 착용한 朝服²⁹⁾에는 裋褕制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日本에서 武官이 裋褕을 가한다는 것은 최고의 禮를 갖춘 복식이었음을 알 수 있고 이로부터 統一新羅期 石人像 1의 복식도 최고의 禮를 나타내는 武官의 官服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武官의 裋褕鎧착용은 統一新羅期 이전에도 볼 수 있는 것으로 高句麗 古墳壁畫 중 安岳3號墳 行列圖에 나타난 武人들<그림 13>을 살펴보면 弓手와 槍手 모두 襦袴차림에 조끼형의 갑옷을 입었으며 머리에는 幘을 쓴 모습을 볼 수 있다.³⁰⁾ 본래 裋褕은 武人의 胸部·背部를 보호하는 防具인데 革이나 金屬製였던 것으로 日本 正倉院

25) 김문숙, "우리옷의 목둘레선에 관한 연구—上代에서 南國新羅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pp.66~68.

26)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攷』 中世編, 文化出版局, 1984, p.106.

27) 『新唐書』 卷24, 志第14, 車服

「平巾幘者武官衛官公事之服也 金飾五品以上兼用玉 大口袴烏皮韃白練裙襠起梁帶 倍大仗有襠襠藤蛇 朝集從 事州縣佐史岳濱祝史外州品子庶民任掌事者服之 緋襪大口袴紫附袴 文武官騎馬服之則去襠襠藤蛇」

28) 『三國史記』 卷 第11, 新羅本紀, 文聖王條

29) 北村哲郎, 『日本服飾史』, 衣生活研究會, p.39

30) 李美娜, "갑옷에 대한 연구—朝鮮王朝時代를 中心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pp.3~4.

소장의 裋襦는 無袖寬頭衣형으로 양 옆이 봉재되지 않고 前後에 늘어뜨리도록 해서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데³¹⁾ 양옆이 봉재되었다면 安岳3號墳에서 보이는 조끼형의 갑옷과 동일한 형상이다. 즉 安岳3號墳에서 보이는 조끼형의 갑옷은 統一新羅期 石人像이 착용하고 있는 裋襦鎧의 始原形이라고 보여지며 三國時代 이래 존재하였다고 생각된다.

(2) 石人像2의 복식

石人像2는 聖德王陵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元聖王陵(掛陵), 興德王陵에서만 발견되었는데 深眼高鼻와 多鬚髯으로 西域人像으로도 불리워지고 있다. 이에 대해 朴敬源은 당시 唐에는 많은 西域系 胡인들이 文武官으로 동용되고 군대의 傭兵으로 또는 일반 商人으로 진출하고 있었으나 사신이나 商賈의 수행으로 또는 流民으로 신라에 來往한 胡인이 결코 적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이러한 石人像2에 대하여 新羅에 유입한 西域系 兵卒의 모습이라고 주장하였다.³²⁾ 그런데 後漢시대인 146~156년으로 알려진 山東省 曲阜縣 出土 樂安太守墓에 있는 石人 二軀의 가슴에 「漢故樂安太守慶君亭長」과 「府門之卒」이라는 글씨가 각각 새겨져 있었던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앞서 제시하였듯이 이 石人 1쌍은 「府門의 長」과 「卒」로서 太守 墓前의 警護로 배열한 石像인 것이다. 그런데 統一新羅의 경우 陵墓에 배치된 石人像이 당시 唐代 文人像과 武人像이 나뉘어 배치된 것과 달리 모두 武人像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石人의 陵墓 守護라는 本意를 구상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石人像2를 石人像1에 따르는 兵卒의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石人像1은 좌우대칭의 엄격한 자세임에 비해 石人像2는 고개를 좌우로 돌리고 허리를 살짝 튼 동적 자세로 결코 石人像1 보다 높은 지위의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朴敬源의 주장과 같이 石人像2를 石人像1에 따르는 西域系 兵卒로 보고 그 복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元聖王陵(掛陵), 興德王陵의 石人像2는 모두 머리에 띠³³⁾를 두르고 나머지를 머리 후면에 길게 늘어뜨리고 있고 右衽의 圓領袍를 착용하고 있는데 모두 허리아래가 트여진 唐代 缺胯袍의 형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허리보다 낮은 위치에 느슨하게 띠를 매고 있는데 띠의 왼쪽에는 帶狀의 것을, 오른쪽에는 주머니같은 것을 각각 垂下하고 있다. 圓領袍의 길이는 元聖王陵의 石人像2는 무릎과 발목 중간정도의 선까지 조각되어 확실히 알 수 없으나 興德王陵 石人像2를 보면 발등까지 이르는 長袍였음을 알 수 있고 元聖王陵의 石人像2는 옆트임 사이로 무릎위 橫線이 표현되어 있어 이로부터 圓領袍안에 또 다른 무릎위에 이르는 內衣를 입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당시 唐과 日本의 경우 缺胯袍는 대체로 武官 및 지위가 낮은 사람이 착용한 것을 근거로 한다면 복식으로 고찰해 보아도 앞서 제시하였듯이 石人像1 보다는 石人像2는 낮은 계급의 武人으로 판단된다.

IV. 결 론

이상으로 統一新羅期(669~936년) 陵墓石像 중 十二支像과 石人像의 복식을 살펴보았다. 統一新羅의 十二支像은 神將像의 성격을 확립하여 陵墓 護石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중국의 경우 일반 明器의 형태로 廣袖袍를 착용하고 두 손을 廣袖안에 넣어 拱手의 자세를 보이고 있어 時間神의 성격이 강했던 것과 달리, 統一新羅의 十二支像은 복식에서도 하나는 武服차림, 다른 하나는 襦·袴 혹은 袍·裙·袴 등의 두가지 형식이 존재하고, 또 두가지 형식 모두 무기를 들고 있어 守護神의 성격을

31) 關根眞隆, 「奈良朝服飾の研究」, 吉川弘文館, 1974, p.121.

32) 朴敬源, 앞논문, p.179.

33) 石人像2에서 보이는 머리띠에 대해 김용문은 이것이 고대 사산조 이란 귀족들의 징표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용문, “쿠차(龜茲)의 복식”, 『服飾』 제24호, 1995, p.97)

더욱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먼저 8세기 중엽의 推定神文王陵 十二支像은 武服차림이 아닌 十二支像 중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袍아래에 裙과 袴를 함께 착용하여 고유의 服制에 中國 禮服의 개념을 도입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8세기 말 축성된 것으로 추측되는 金庾信墓 十二支像의 복식은 長袍가 아닌 襦袴차림이고 8개 像에서 直領襦의 깃이 이중선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無襟 또는 二色, 三色的 著袴를 통한 武官의 복식으로 생각되며 소매는 일종의 끈으로 묶어 활동성을 가하였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憲德王陵 十二支像은 武服차림이 아닌 十二支像 중에서는 가장 시대적으로 늦은 9세기 전반기의 것으로 武服차림이 아닌 十二支像의 消滅의 한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憲德王陵 十二支像에서는 推定神文王陵에서 보이는 長袍의 의례적 차림, 金庾信墓의 武官복식에서 나타나는 이중선으로 표현된 깃, 그리고 四天王像의 武服에서 착용한 팔찌와 頸當과 같은 목걸이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袍·裙·袴 혹은 襦·袴 차림의 十二支像과 동시에 전개되는 8개의 武服 十二支像은 당시의 갑옷에 장식성을 가미한 복식을 착용하고 있었다.

다음 陵墓의 神道에 배열된 石人像은 8세기 중엽부터 9세기 중엽에 이르는 3개 陵에서 발견되는데 자세 및 복식 형태의 유사성을 근거로 石人像1과 石人像2로 나누어 볼 수 있다. 石人像1은 冠을 쓰고 長袍위에 襦를 가하였는데 당시의 중국, 일본과 비교해 볼 때 武官의 최고의 禮를 나타내는 官服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石人像2는 唐代 缺胯袍와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 陵墓石像에 나타난 복식으로부터

알 수 있는 統一新羅時代의 복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推定神文王陵 十二支像의 袍아래에 裙과 袴를 함께 착용한 모습, 金庾信墓 十二支像의 襦袴차림, 憲德王陵 十二支像의 袍, 袴차림은 高句麗 古墳壁畫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이며 더욱이 金庾信墓 午(馬)像, 憲德王陵 寅(虎)像에서는 도련에 撰을 가한 점으로부터 三國時代이래의 유제가 統一新羅時代까지 지속되었음을 실제 유물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둘째, 統一新羅時代 武官의 경우 長袍에 襦를 가한 차림, 著袴·無袴를 통해 그 소속을 표시한 襦袴차림, 缺胯袍 등의 복식이 존재하고 있었고 갑옷 착용 모습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즉 武官의 경우 착용상황에 따라 그 복식을 달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중 缺胯袍는 중국 唐代의 복식과 일치하고 있지만 중국과의 접촉에 의한 단순한 모방이 아니었음은 石人像1의 長袍와 襦袴차림에서 중국의 石人像과 冠의 형태와 문양, 襦袴에 甲片 조각의 有無에서 차이를 나타나고 있던 점에서 알 수 있었고 오히려 甲片을 연결한 襦袴의 모습은 高句麗 古墳壁畫 중 安岳3號墳 行列圖에 나타난 武人들의 차림에서 그 맥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三國時代이래 복식 발달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陵墓石像에 나타난 복식은 統一新羅時代 복식 중 그 단편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것만으로 統一新羅時代 복식의 전반을 살피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들 복식과 기타 服飾資料 즉, 『三國史記』, 『三國遺事』 등의 문헌 및 龍江洞과 隍城洞 古墳 出土土偶 등의 유물 자료와 더불어 당시 中國 및 日本의 服飾制度와의 비교를 통해 統一新羅期의 복식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고자 한다.

에 와서는 그 색을 나누지 않고 가운데 線만 남겨 옛 풍습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이중깃이 朝鮮時代까지 이어져 내려왔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중깃이라 함은 현재의 원삼깃과 같이 이중의 깃으로 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위에서와 같이 겉깃의 폭을 둘로 나누어 바느질한 것은 엄밀히 하자면 이중선 깃이라 함이 타당할 것이다. 즉 新羅 武官의 이중선 깃이 高麗, 朝鮮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三國史記』의 기록에 의하면 衿色에 따른 소속 부대의 구별은 單色, 두가지색 그리고 세가지색까지도 사용하였고 또한 無衿의 경우도 보이고 있으며 이때 袴衿과 無衿 사이에는 軍事上의 차이는 드러나지 않고 또한 卒兵에 限한 것이 아니며 장군들에게도 袴衿과 無衿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¹⁾ 따라서 金庾信墓 十二支像은 12개 像 중 8개 像의 깃에 이중선이 표현되어 있으므로 이는 袴衿과 無衿이 모두 존재했던 당시 武官의 복식을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음은 襦의 소매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子(鼠)像과 亥(猪)像是 廣袖로 표현된 반면 이를 제외한 10개 像의 소매는 上腕부분에 가는 帶狀의 표현과 함께 주름이 잡혀 있어 매우 특징적인 소매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통이 넓은 소매를 무엇인가로 묶음으로써 활동성을 가한 것으로 복식발달과정의 당연한 결과로 보이는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의 통이 넓은 바지 부리를 끈으로 조임으로써 활동성을 부가하였던 점, 中國에 유입된 袴褶服에서 일반적으로 통이 넓은 바지를 무릎부위에서 끈으로 묶어 착용하였던 袴褶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故宮博物館 所藏의 北魏 男俑<그림 6>은 袴褶服차림이나 金庾信墓 十二支像에서와 같이 소매의 上腕부분이 무엇인가로 조여진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즉 統一新羅의 武官 복식은 기본적으로 襦袴차림이나 子(鼠)像과 亥(猪)像是 廣袖로 표현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襦의 소매를 일률적으로 끈으로 묶었던 것은 아니고 그때 그때의 필요에 따라 달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기에서 子(鼠)像과 亥(猪)像의 廣袖가 襦의 소매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넓은 소매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이를 제외한 10개 像의 소매에서 끈으로 묶은 아래 부분이 바람에 날리듯 과장되게 표현된 것과 더불어 조각 기법상의 결과로 보인다. 또한 이와 유사한 소매 모양은 통일신라시대 四天王寺址 出土 彩釉四天王像<그림 7> 및 唐代 武人의 武服에서 보일 뿐만 아니라 四天王像의 武服을 거의 그대로 착용하고 있는 金庾信墓 蠟石製 牛(馬)像과 亥(猪)像<그림 9-①> 그리고 기타 統一新羅 武服 十二支像에서의 소매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이는 武服 十二支像과 연관성이 존재하였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관성은 손목부위에 가는 두 줄의 선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四天王像의 武服에서 차용한 팔찌인 것으로부터도 알 수 있다.

다음 12개 像 모두에서 보이는 襦의 불규칙한 밑단은 唐代 陝西西安南郊 楊思勳墓 出土의 石刻 武官像에서 보이듯이 행동의 편리를 위해 허리에 맨 帶 안에 上衣의 옷자락을 삼입함으로써 형성되었거나 혹은 중국 袴褶服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帶를 허리에 띠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牛(馬)像是 다른 像과 달리 襦의 도련에 襖을 두른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허리에 대를 매고 앞에서 늘어뜨린 것과는 별도로 허리 양옆에서 길게 늘어뜨려진 끈은 수호신적 성격을 지니게 됨에 따라 天衣자락을 표현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袴는 발목 주위에 주름이 표현되어 있어 推定 神文王陵과 동일한 寬袴임을 알 수 있고 靴의 표현에도 장식문양을 조각하였다.

이상에서 金庾信墓 十二支像은 襦와 袴차림인데 襦의 이중선으로 된 깃표현과 활동성을 가하기 위해 소매를 일종의 끈으로 묶었던 점, 그리고 四

21) 朴恩用, 앞논문, pp.18~19.

〈표 1〉 統一新羅期 陵墓 石像에 十二支像이 조각된 예³⁴⁾

陵墓	在位 期間 (년)	現所在地	陵주위 길이 (m)	十二支石 크기 (cm)	支石 수	浮彫面 길이 (cm)	복식
眞德女王	647~654	月城郡見谷面五柳里	50	66×50	12	0.3	武服
神文王陵 (推定)	681~691	慶州市九皇里	51	96×67	24	7	袍·裙·袴
聖德王陵	701~736	慶州市朝陽洞	52.1	-	30	丸彫	武服
方形墳	-	慶州市九政里	36	75×58	12	3	武服
陵只塔址	-	慶州市排盤洞	?	93×67	?	6	武服·平服
金庚信墓	595~673	慶州市忠孝洞	50.24	96×61	24	3	襦·袴
元聖王陵	784~798	月城郡掛陵里	72	93×66	36	5	武服
景德王陵	741~764	月城郡龜池里	66.1	92×61.5	36	6	武服
憲德王陵	808~825	慶州市東川洞	75	107×61	48	3	袍·袴
興德王陵	825~835	月城郡安康邑文通里	64	91×61.5	36	6	武服
五柳里		月城郡五柳里	44.8	75×60.5	24	0.4	武服

〈표 2〉 統一新羅期 石人像이 사용된 例

王陵名	在位期間	石人像 1	石人像 2
聖德王陵	702~737년	東 身高 205cm	
		西 頭部殘存	
元聖王陵	785~798년	東 身高 255cm	東 身高 238cm
		西 身高 267cm	西 身高 247cm
興德王陵	826~836년	東 身高 282cm	東 身高 271cm
		西 身高 285cm	西 身高 27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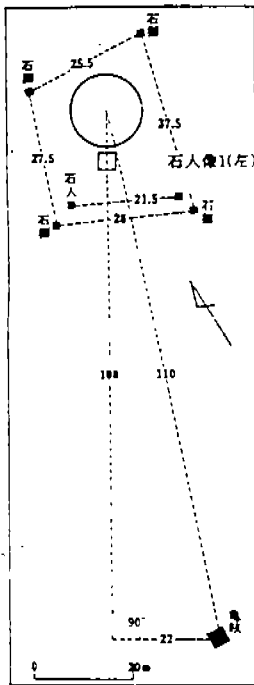
34) 權容浩, "統一新羅 十二支神像의 造形性 研究"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p.28.과 姜友邦, "新羅十二支像의 分析과 解釋-新羅十二支像의 metamorphose-", 『佛敎美術』1, 1973. p.4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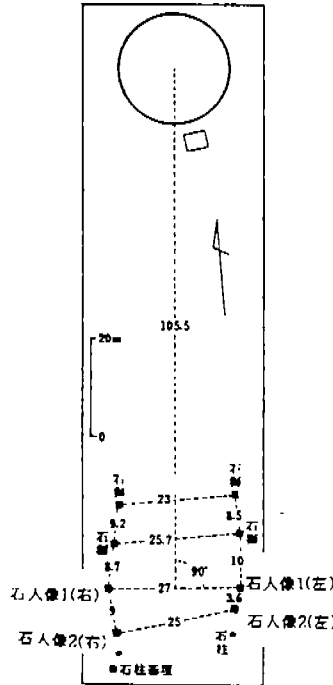
① 唐 建陵(762) ② 唐 景陵(820)

<그림 1> 西安市東郊出土 史思禮墓 十二支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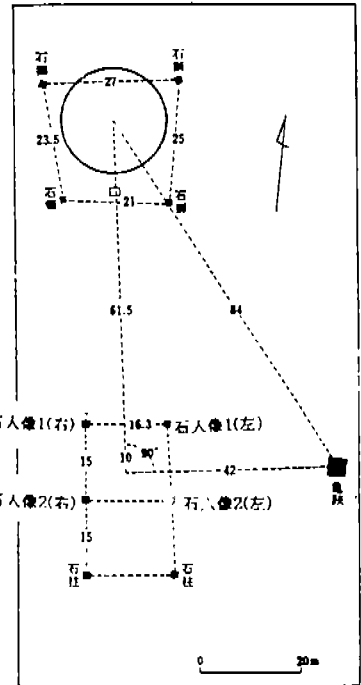
<그림 2> 唐 諸陵 石人像



① 聖德王陵



② 元聖王陵(掛陵)



③ 興德王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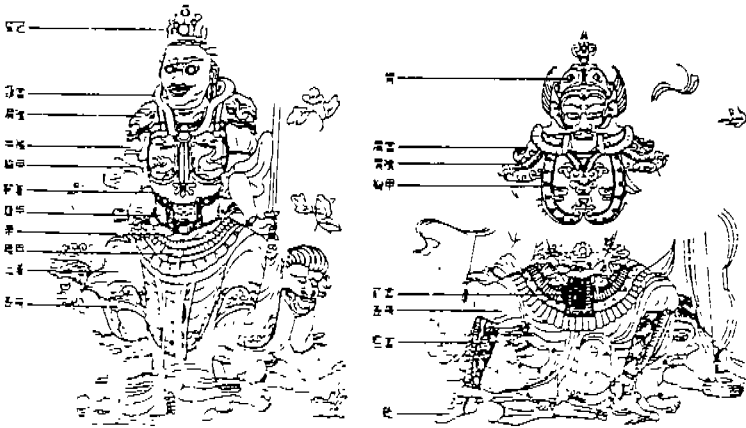
<그림 3> 石人像 配置圖



<그림 4> 推定 神文王陵 十二支像



<그림 6> 高宮 박물관 소장 北魏 男俑



<그림 7> 四天王像의 武服



<그림 10> 傳金海 退來里 出土 板甲



① 子(鼠)像

② 丑(牛)像

③ 寅(虎)像

④ 卯(兔)像



⑤ 辰(龍)像

⑥ 巳(蛇)像

⑦ 午(馬)像

⑧ 未(羊)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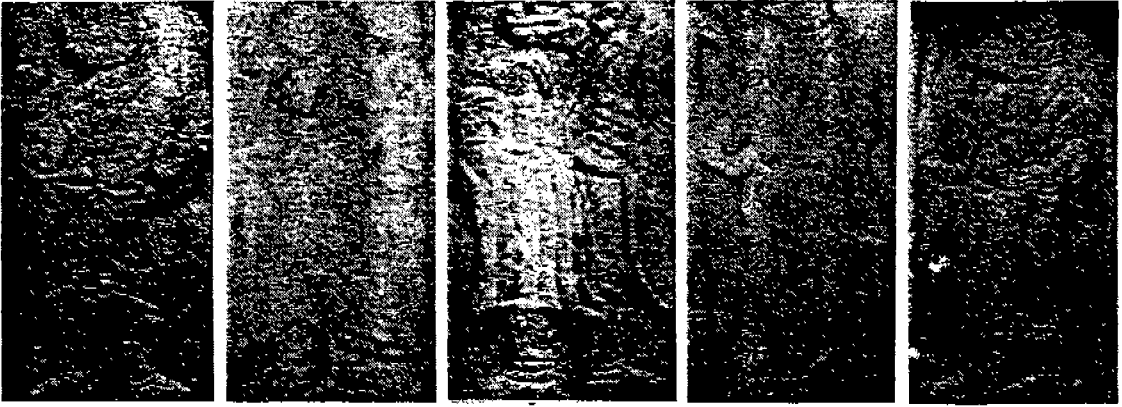
⑨ 申(猴)像

⑩ 酉(雞)像

⑪ 戌(犬)像

⑫ 亥(猪)像

<그림 5> 金庚信蓋 十二支像



① 寅(虎)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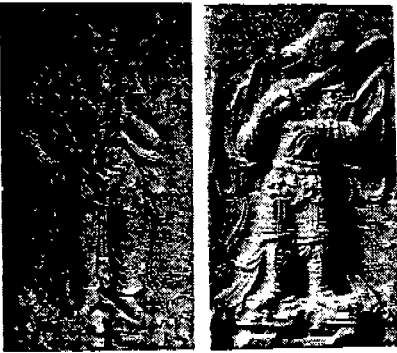
② 卯(兔)像

③ 辰(龍)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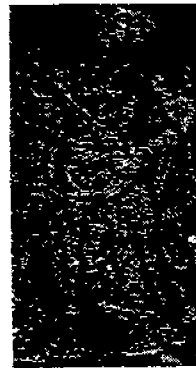
④ 戌(犬)像

⑤ 亥(猪)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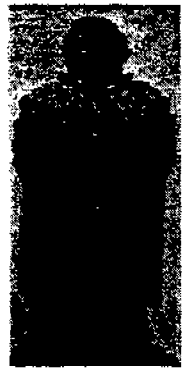
<그림 8> 憲德王陵 十二支像



① 金庚信墓 蠟石製 午(馬)像斗 亥(猪)像



② 興德王陵



③ 聖德王陵



④ 陵只塔



⑤ 景德王陵



⑥ 五柳里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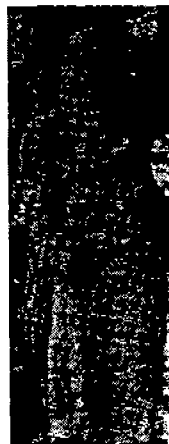
<그림 9> 武服 十二支像



① 聖德王陵

② 元聖王陵(掛陵) 左, 右

<그림 11> 石人像1(興德王陵 석인상은 ①과 동일)



① 元聖王陵(掛陵) 左, 右

② 興德王陵 左(右는 이와 동일)

<그림 12> 石人像2



<그림 13> 安岳3號墳 行列圖에 나타난 武人들

참고문헌

- 「三國史記」, 「舊唐書」, 「新唐書」
- 姜友邦, “新羅十二支像의 分析과 解釋—新羅十二支像의 metamorphose—”, 「佛敎美術」 1, 1973.
- _____, “統一新羅 十二支神像의 樣式的 考察” 「考古美術」 154·155 合號. 1982.
- _____, 「圓融과 調和」, 열화당, 1990.
- 具仁淑, “隍城洞古墳出土 土俑의 服飾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 金東旭, 「增補韓國服飾史研究」, 아세아 문화사, 1979.
- 김문숙, “우리옷의 목둘레선에 관한 연구—上代에서 南國新羅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김용문, “쿠차(龜茲)의 복식”, 「服飾」 제24호, 1995.
- 金仁淑, “龍江洞土俑에 나타난 服飾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 朴敏源, “統一新羅時代의 墓儀石物 石人 石獸研究” 「考古美術」 154·155 合號. 1982.
- 朴恩用, “新羅軍制가 現代服飾에 미친 影響”, 「國文學研究」 제2집, 1969.
- 朴春玉, “裋에 관한 연구(唐 新羅 古代日本을 中心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孫景穗, “韓國十二支生肖의 研究” 「梨大史苑」 제4집, 1962.
- 宋桂鉉, “三國時代 鐵製甲冑의 연구—嶺南地域 出土品을 中心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8.
- 劉頌玉, “朝鮮時代 出土服飾을 통해 본 男子袍 研究”, 「大東文化研究」 제18집. 1984.
- 李美娜, “갓옷에 대한 연구—朝鮮王朝時代를 中心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 李玉曼, “唐代 男子服飾에 關한 研究—統一新羅 時代 服飾과의 比較面에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朱星姬, “日本 正倉院의 「吳女背子」에 對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 崔燕京, “新羅土偶에 나타난 服飾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韓운숙, “新羅服飾과 위구르服飾의 關係 연구”, 服飾 제24호, 1995.
- 關根眞隆, 「奈良朝服飾의 研究」, 吉川弘文館, 1974.
- 北村哲郎, 「日本服飾史」, 衣生活研究會.
-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攷」 中世編, 文化出版局, 1984.
- 原田淑人, 「唐代의 服飾」, 東洋文庫, 1970.
- 「世界考古學大系」 第7卷 東아시아Ⅲ, 平凡社, 1960.
- 齋藤忠, 「新羅文化論攷」, 東京: 吉川弘文館, 1984.
- 秦 浩, 「隋唐考古」, 南景大學出版社, 1992.
- 中國美術全集編輯委員會, 「中國美術全集」 雕塑編2, 秦漢彫塑, 北京: 人民美術出版社, 1985.
- 陝西省博物館編, 「隋唐文化」, 1989.
- 「조선유적유물도감」 5—고구려편(3)—, 평양: 외국문종합출판사, 1991.

ABSTRACT

A Study on the Costume of Stone Statues in Royal Tombs and Graves in Shilla Dynas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stume of Stone statues in royal tombs and graves in Shilla dynasty. Stone statues in royal tombs and graves are divided into statues of the twelve horary signs(十二支像) and stone figure of a man(石人像).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Statues of the twelve horary signs are found eleven in royal tombs and graves. First, statues of the twelve horary signs in assumed Shinmunwangrǔng(推定神文王陵) wear long robe(長袍), pants(袴), skirt(裙). It says that

the costume element of Shilla and the costume element of Tang are mixed. But statues of the twelve horary signs was developed as a tutelary god. Statues of the twelve horary signs in Kimyoushinmyo(金庾信墓) wear jacket(襦), pants(袴), instead of long robe(長袍). Also as attaching other color cloth in collar of jacket(襦) or not, they are showing dress of military officer. Next statues of the twelve horary signs in Höndökwangrüng(憲德王陵) wear long robe(長袍), pants(袴). It says that they imitate assumed Shinmunwangrüng(推定神文王

陵), Kimyoushinmyo(金庾信墓). And statues of the twelve horary signs in the rest of royal tombs and graves put on decorative armor.

2. Stone figure of a man are found in Söngdökwangrüng(聖德王陵), Wonsöngwangrüng(元聖王陵), Hüngdökwangrüng(興德王陵) and divided into two types. Type 1 wear long robe(長袍) and Yangdang(襦袴). They stand for the best dress uniform of military officer. Type 2 wear Danreong(團領) with side slash. They stand for common soldier.